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장소애착이 장소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Users' Place Attachment on the Value of Public Libraries

이 정 호 (Jeong-Ho Lee)*

목 차

- | | |
|-----------------|------------------|
| 1. 서론 | 3.1 조사설계 |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2 연구모형 및 변인 설정 |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결과 분석 및 가설 검정 |
| 2. 이론적 배경 | 4.1 분석방법 |
| 2.1 장소와 장소성 |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
| 2.2 장소애착 | 4.3 가설 검정 |
| 2.3 선행연구 | 4.4 연구결과 요약 및 함의 |
| 3. 연구 방법 | 5.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소애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 간의 영향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보고, 이용빈도, 거주기간, 이용목적, 웹사이트 이용경험이 장소애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계층적 회귀분석결과, 이용빈도와 거주기간이 '장소의존성'과 상호작용하여 '체험가치인식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목적에 대한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목적별로 집단을 구분하고 장소애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와의 관계를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도서관 웹사이트 이용경험은 장소애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장소애착도라는 이용자의 감정적인 지표가 장소로서의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서 활용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effects between the place attachment and the place value in public libraries; and also to identify whether frequency and purpose of usage, length of residence, and website use play a moderating role i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users' place attachment and the perception of place value for public libraries. Users' place dependence affected the library's value positively(+) due to moderating effect of usage frequency of the library and the users' length of residence. In order to estimate the moderating effect by purpose of use, the groups were divided by purpose of library us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place value by groups were analyzed. However, website usage bore no effect on users' place attachment or perception of place value to their local library. This study showed that place attachment as an affective indicator on users is very useful variable to explain the value of libraries as a social and cultural place.

키워드: 공공도서관, 장소, 장소성, 장소애착도, 장소가치

Public Library, Sense of Place, Place Attachment, Place Value, Library as Place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정보센터(jholee@sdi.re.kr)

논문접수일자: 2011년 10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1월 2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209-234, 2011.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4.20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소란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며 일상적 의미가 추구되는 곳이다. 어떤 장소가 갖는 특징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활동과 그곳에서 수행되는 사회적·심리적인 과정들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도서관은 일반대중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며 시민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장소로서의 공공도서관은 개인이 발현하고 유지하는 소속감, 정체성, 애착 등 이용자의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실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소로 오게 하는 중계자이며 그 안에서 이용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도서관의 정보적 기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존의 기능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도서관이 시민의 삶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시민의 의식 속에 공공도서관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 대한 움직임으로 장소로서의 도서관(library as place)이나 도서관의 장소성(sense of place)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장소성의 하부개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장소애착을 통해 사람과 장소간의 결속

을 다질 수 있다(김동근 2008). 따라서 그 장소에 애착이 있는 이용자를 개발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도서관에 애착이 있는 이용자는 비록 다른 대안들이 제공되더라도 그들이 선택한 장소를 쉽게 바꾸지 않는 충성도 있는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논문에서 장소애착의 개념을 연구과제로 다룬 예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나 관광학, 지리학 분야에서는 해당 장소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한 변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장소애착은 어떤 장소에 대한 감정적 결속과 심리적 유대감의 표출 정도를 말한다. 장소애착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도서관의 성과지표로 사용되는 만족도의 개념과 유사하다. 본 연구는 장소애착이라는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감정적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장소로서의 도서관의 본질을 이해하고 도서관 경험에 따른 가치를 재발견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공공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와 물리적 실체로서 도서관에 뿌리내린 사람들의 애착으로 대변되는 장소성을 '사람'(이용목적별 집단), '시간'(이용빈도, 거주기간), '행위'(웹사이트 이용경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네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 가설들에 대한 검정을 통해서 공공도서관이라는 물리적 실체와 이용자와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째, 선행연구와 이론고찰을 통해 변인을 설정하였다. 둘째,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를 설계하여 서울시내 6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의 타당성,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계층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장소와 장소성

장소와 관련된 연구 분야는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기호학, 마케팅 등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학문적 특성을 지니고 현재까지 발전하여 왔다. 장소성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생소한 용어이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인문지리학, 환경심리학 분야 등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온 장소(place)라는 이론적인 틀을 사용하여 장소로서의 도서관(library as place)이라는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담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타 학문 분야에서는 장소성과 관련해서 이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를 대상으로 정량적인 모형으로도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장소의 사전적 의미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장소는 매우 다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 개념의 범위는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의자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장소는 인간의 인식이나 의식 작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Relph(1976)는 장소를 추상이나 개념이 아니고 생활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의미, 물리적 실체, 지속적인 활동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간과의 비교를 통해서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장소는 일반적으로 사건, 사물, 행위가 펼쳐지는 공간적 맥락으로 이해된다(Entrikin 1997).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 그 공간을 알게 되고, 그 공간에 이름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그 공간은 '장소'가 되며 이러한 공간의 장소화 과정과 공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특정한 의미가 내재된다. 따라서 공간은 추상적이고 기능적인 반면, 장소는 구체적이면서 해석적이고 미학적이며 지극히 개인의 경험, 의식, 상상력이 부여된 공간이다(김지혜 2007).

인간은 각 장소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행동하는데 이를 장소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장소의 체험을 설명하기 위해 '장소감(sense of place)', '장소정신(spirit of place)', '장소성(placeness)'이라는 용어로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석환(1998)은 이러한 장소성(placeness)형성과정을 장소정신(spirit of place)과 장소감(sense of place)의 변증법적 생산물로 구조화하였다. 장소가 인간의 인식체계를 통해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가 부여된 공간이라 한다면, 이와 같이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끔 하는 총체적 특성을 장소성이라 한다(최막중, 김미옥 2001).

2.2 장소애착

‘애착(attachment)’은 교육학 및 심리학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개념으로 유아와 부모 또는 가족, 친구 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었지만, 인간과 환경의 관계 즉, 특정 장소 또는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관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장소에 대한 애착의 한 축에는 공간적 차원이 자리 잡고 있지만 비공간적인 다양한 양상도 수렴되어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적 의의와 가치 확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질적인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장소애착은 특정 장소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징적이며 감정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Feldman(1990)은 장소애착을 인간의 지리적인 환경(setting)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지속적인 심리적 태도나 행동적 경향으로서 개인의 일정장소에 대한 애착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Brown과 perkins(2003)는 장소애착을 특정한 감정에 대해서 정서적 침잠, 안전의 느낌, 존중, 장소와 관련된 소속감이라고 하였으며, Hummon(1992)은 장소에 대한 정서적 투자가 곧 장소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였다(Altman and Low 1992 재인용).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는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적, 감정적 유대’로 정의되고 있다.

도서관에 있어서 장소애착의 근원을 살펴보면 책과 독서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독서행위는 평범한 일상과 사물을 범상 이상의 가치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도서관은 지식을 쌓아둔 저장고로서 그 지식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독자 개개인이 독서를 통하여 그 의미를 체득해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고의 변화는 인간이 행동에도 변화를 초래한다(양재한 1991). 장소애착이 어떤 장소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 유대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이렇게 일상속의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는 우연한 기쁨, 도서관과 결부되어 겪게 되는 사건에 대한 기억 그리고 도서관과 자신과의 밀착된 감정 등 이용자가 도서관과 맺게 되는 광범위한 관계는 장소애착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소애착도가 높다는 것은 그 장소가 사람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으며 가치가 높음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윤유식, 박용섭 2005).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장소애착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참여라든지 목적지향적인 행동 등 그들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애착은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2.2.1 장소의존성

일상생활이나 특정 공간의 이용에 있어 흔히, 개인 혹은 집단이 특정 행동을 위해 어떤 장소에 의존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때 특정 장소 또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장소에 대해 강하게 관련되거나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가리켜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으로 정의할 수 있다(강신겸 2001). 이는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만족시키는 특정 장소의 잠재력과 관련된 기능적 애착 유형으로 특정 활동을 위해 다른 장소를 사용하지 않고 그 장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을 말한다(김동근 2008).

이렇게 장소가 반복적이고 기능적인 의존성

이 높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목적지향적 행동을 유발시키거나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물리적 자원 측면에서 현 장소의 품질 수준, 대체 가능한 다른 장소와의 비교에 의해 나타나는 선호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장소의존성은 장소의 기능적 측면, 즉 특정 활동을 하기 좋은 곳이라던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욕구를 충족하는데 우월한 곳이기에 그 장소에 의존함을 강조하고 있다(Williams et al. 1995).

장소의존성은 장소에 대한 반복적인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장소정체성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의존성은 관광자원이나 문화기관 등의 장소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요소라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분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2.2.2 장소정체성

장소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사회의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시키는 지리적 배경이 된다. 장소는 장소가 소재하는 곳의 자연환경과, 인공적 구조물, 문화적 산물 등에 의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유지시킨다(이은숙 2005). 인간의 삶의 세계는 장소 속에서 중첩된 것(이은숙 2005)이라는 관점에서 장소란 한 인간의 정체성 형성과 깊은 연관을 맺는다. 장소를 무대로 개인은 그가 속해있는 집단과 반응하며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얻은 경험은 장소의 의미를 강화시켜 거기에서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정체성을 얻게 된다.

이렇듯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이란 감정적, 상징적 이유로 장소가 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Proshansky (1983)는 자아정체성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 짓는 것뿐 아니라 사물이나 공간, 장소 등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소정체성은 장소에 대한 소속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장소에 대한 강한 감정적인 애착으로 볼 수 있으며 감정적 애착이란 어떤 사람이 그 곳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하여 해당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징적”이라는 의미는 극히 개인적(예: 어린 시절을 보냈다)인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공유되는 것(예: 역사를 상징하는 문화재 등)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감정적 애착의 역할은 참여 동기로서 목적지가 갖는 공통된 의미나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며(Williams et al. 1995), 특정 장소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Schreyer et al. 1981).

장소정체성은 상당히 긴 이용 기간을 통해 형성되며,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자아정체성 개념으로부터 도출한 장소정체성은 물리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장소와 공간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을 이용하는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적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2.3 선행연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은 사회학, 인문지리학, 환경심리학, 관광학, 소비자마케팅 등 다양한 학문분야로부터 도출되었다. 사회속의 공공도서관의 현재 모습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행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이론들을 고찰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헌정보학 분야는 장소에착을 다룬 사례가 부재하기 때문에 장소로서의 도서관에

관한 논의 위주로 개관하였다.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정도와 형태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Kasarda & Janowitz 1974; Stokowski & Lee 1991)을 연구하여 애착도를 지역정서, 사회적 결속으로 구분하여 척도를 구성한 바 있다. 관광학 연구분야에서는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친근감'이라는 측면에서 애착을 정의하고 장소애착에 관심을 두어왔다. 관광객이 관광목적지를 선택함에 있어 특정 장소나 지역에 대해 갖는 애착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Moore & Graefe 1994; Williams et al. 1992; Williams et al. 1995)들을 주로 수행하였다. Williams 등(1995)은 의존성, 정체성, 자아표현, 중심성 등 4개의 차원 25개 항목을 측정 척도를 구성하여 장소애착도를 측정하고 결과의 의존성과 정체성이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Moore와 Graefe(1994)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지로서 장소애착도에 관한 연구에서 정체성과 의존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박청인(2000)은 국립공원 취락지구 주민의 애착도를 측정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장소착근성(rootedness), 소속감(belongingness), 정체성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환경심리학 및 환경설계분야에서는 장소성이란 개념으로 애착도를 설명하였다. Stokols와 Shumaker(1981)는 환경과 인간, 지각되는 장소에 대한 의존상태로 애착도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는 특정 장소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장소애착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한 연구이다. Relph(1976)와 Tuan(1980) 등 인문지리학자들은 지리적인 장소에 대해 개인적으로 애착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소속감과 목표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장소'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주된 쟁점들은 비판적 담론의 장소이자 문화적 소비의 공간인 도서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이 사회에 역할 및 기능을 구현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장소로서의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문헌정보학 연구의 학술적인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Most 2009). "가상(virtual)이라는 개념이 점증하는 시대에 과연 물리적 장소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이 아직도 중요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Myall 1999). Given과 Leckie(2003) 등은 디지털 시대에 구시대의 낡은 유물인 도서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비평에 대한 반론으로 도서관이야말로 도시인의 삶에 활력이 되는 몇 개 안되는 공공장소로서 그것의 현재적인 기능 및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경우 장소로서의 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미래의 도서관상을 예측하면서 디지털도서관 신화에도 불구하고 실물을 통한 정보 지식의 이용, 지적 실체로서의 장서, 그 안에서 추구되고 있는 인적서비스, 개인과 커뮤니티의 만남 등 도서관의 장소로서의 의의 및 중요성 강조한 연구(권은경 1997),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의 도래와 함께 전통적으로 도서관 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도서관 공간도 변화하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문헌연구, 이용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도서관의 물리적 장소는 이용자에게 여전히 중요함을 확인한 연구(차미경 2006)가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조사설계

본 연구는 2011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어린이집단 20%(60부), 성인 및 청소년 집단 80%(240부)의 비율로 추출하였다. 어린이 집단은 초등학교(만 7세~12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용 설문지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내용도 성인용 설문지와 문항별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도록 설계 하였다. 표본추출은 어린이도 공공도서관으로서 중요한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의 편리성 때문에 설문과정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어서 층화표본추출법을 선택 하였다. 어린이 집단과 성인 및 청소년 집단의 배분 비율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전체 회원 중에서 성인 및 청소년 회원 수 대비 어린이 회원 수의 비율¹⁾을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표집하였다.

<표 1> 모집단의 규정 및 설문조사

조사대상	서울지역내 공공도서관 이용자
자료수집	일대일 면접 설문
조사범위	서울지역 6개 도서관
조사기간	2011년 2월 9일(수) ~ 2월 15일(화)
표본추출	층화표본추출(비례배분법)
표본수	총 300명 (어린이 60명, 성인 및 청소년 240명)

설문 대상 공공도서관의 선정은 설문 비용 및 자료 습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공간적 범위를 서울특별시 내로 한정하였다. 설문 대상 공공도서관의 선정은 첫째, 그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연간 방문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도서관으로 하였다. 둘째, 장소애착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누적과 이용자의 경험 축적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 공공도서관은 설립연도가 2000년도 이전인 도서관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응답자의 현재 거주 거주기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9년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물리적 환경이 가진 경관과 공간 현황 즉, 공공도서관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통해서도 장소성이 창조된다. 따라서 도서관 연면적 5000㎡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공도서관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공간적 분포도 가급적 고려하여 서울시 전체의 범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안배를 하였다(<표 2> 참조).

선정된 도서관을 대상으로 각 50부씩 설문지 실시되었고 여섯 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총 300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비교적 응답하기 까다로운 문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어린이도 설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문지의 응답률을 높이고, 응답의 정확성 기하기 위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표 3> 참조).

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index.do>)의 2009년 공공도서관 통계에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회원등록자의 구성을 보면 전체 회원 수는 2,707,216명이고, 그 중에서 어린이는 513,166명(19%), 청소년 및 성인은 2,194,050(81%)명이다. 따라서 표본의 비를 1:4로 배분하였다.

〈표 2〉 설문 대상 공공도서관

도서관명	개관년도	연면적(m ²)	연간방문자수
마포평생학습관	1980	9,716	1,732,128
송파도서관	1994	8,472	1,840,737
양천도서관	1990	6,864	1,880,824
정독도서관	1977	13,247	1,730,624
성동구립도서관	1999	5,692	1,591,603
중랑구립정보도서관	1997	5,106	1,653,452

* 데이터 출처: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2009)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n)	비율(%)	구 분		빈도(n)	비율(%)
성별 (n=300)	남자	160	54	월평균 가구 소득 (n=240)*	100만원 미만	3	1.3
	여자	140	46		100~200만원 미만	15	6.3
연령 (n=300)	10대 이하	129	43.0		200~300만원 미만	39	16.3
	20대	85	28.0		300~400만원 미만	65	27.1
	30대	33	11.0		400~500만원 미만	39	16.3
	40대	30	10.0		500~700만원 미만	50	20.8
	50대	17	5.7		700만원 이상	29	12.1
	60대 이상	6	2.0	방문 소요시간 (n=240)*	15분 미만	58	24.2
거주기간 (n=240)*	1년 미만	12	5.0		15~30분 미만	132	55.0
	1~3년	53	22.1		30분~60분 미만	44	18.3
	4~8년	74	30.8		1시간~2시간 미만	5	2.1
	9~15년	64	26.7		2시간 이상	1	0.4
	16년 이상	37	15.4	방문빈도 (n=300)	거의 매일	79	26.3
교육수준 (n=300)	초등학교	61	20.3		일주일에 2~3회	73	24.3
	중학교	20	6.7		일주일에 1회	74	24.7
	고등학교	63	21.0		한달에 2~3회	32	10.7
	대학교	136	45.3		한달에 1회	26	8.7
	대학원	20	6.7		일년에 3~4회	3	1.0
직업 (n=300)	전문직	10	6.3		일년에 1~2회	13	4.3
	사무직	11	3.7	이용목적 (n=600)**	교육적 목적	231	48.8
	교육직	11	3.7		문화적 목적	87	18.4
	공무원	7	2.3		사회적 목적	16	3.4
	기술직	8	2.7		정보적 목적	115	24.3
	생산직	1	0.3		프로그램 참여	15	3.2
	주부	24	8.0		기타	9	1.9
	학생	192	64.0		홈페이지 이용경험 (n=300)	예	120
	퇴직자	4	1.3	아니오		180	60.0
	무직	23	7.7				

* 어린이는 응답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용 설문지(n=60)에서는 제외되었음.

** 보기 중에 2개를 선택하도록 함. 1개만 선택한 응답자들이 있어 겹쳐서 127개 존재함.

3.2 연구모형 및 변인 설정

3.2.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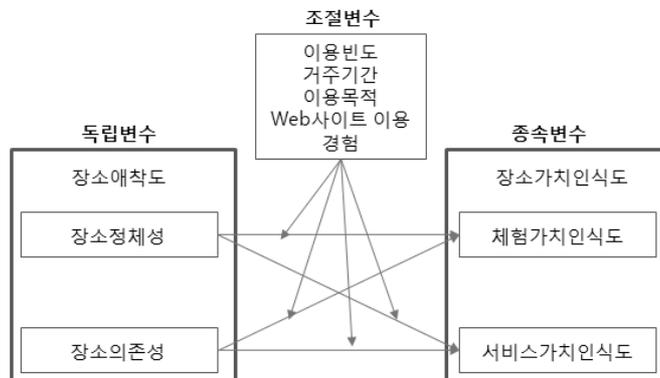
본 연구는 독립변수(장소애착도)와 종속변수(장소가치인식도)간의 관계에서 거주기간 등의 시간변수, 이용목적, 이용빈도, 웹사이트 이용경험 등 이용자변수가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고, 타 학문분야에서 이미 사용되어온 장소애착도 변인이 공공도서관의 일상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였다(〈그림 1〉 참조).

장소애착도는 크게 두 가지 변수, 즉 장소의존성과 장소정체성으로 구분된다(Moore & Graefe 1994; Bricker & Kerstetter 2000). 여기에 임하경(2005)은 장소에 대해 어느 정도 소속감을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장소착근성(place rootedness) 등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세분화하였고 장소 친밀성(place familiarity)과 장소 귀속성(place belongingness) 등의 다섯 가지 개념이 연구자와 연구 목적에 따라 활용되고 있다. Hammitt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다섯 가지

개념에 의한 모델과 두 가지 개념에 대한 모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두 가지 개념에 바탕을 둔 단순한 모델의 설명력이 다섯 개의 개념의 포괄적인 모델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을 장소애착도의 관측변수로 삼았다.

장소애착은 '특정장소에 대한 정서적 결합이나 감정적 유대'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소애착의 요소는 장소애착의 대상인 '장소', 장소애착의 주체인 '사람', 그리고 두 요소간을 연결해주는 '감정'(또는 유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는 어떤 장소에 대한 기능적 목적이나 선호로 인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장소애착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시간'도 장소애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조절변수는 시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용빈도와 거주기간, 그리고 장소애착의 주체로서 이용자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용목적과 웹사이트 이용경험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장소가치인식도 변인의 경우 선행연구를 살



〈그림 1〉 연구의 모형

해보면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빈도, 재 방문의 사, 방문지에서의 평균 소비액, 만족도, 재구매 의도 등 다양하게 연구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장소가치인식도는 서비스가치인식도와 체험가치인식도로 측정변수를 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세부적인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1: 이용빈도가 많을수록 장소애착도는 체험가치인식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이용빈도가 많을수록 장소애착도는 서비스가치인식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거주기간이 길수록 장소애착도는 체험가치인식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거주기간이 길수록 장소애착도는 서비스가치인식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이용목적에 따라 장소애착도와 체험가치인식도와의 관계는 다를 것이다.

가설 3-2: 이용목적에 따라 장소애착도와 서비

스가치인식도와의 관계는 다를 것이다.

가설 4-1: 웹사이트 이용경험은 장소애착도와 체험가치인식도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2: 웹사이트 이용경험은 장소애착도와 서비스가치인식도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구성 변인의 조작적 정의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인은 장소애착도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장소가치인식도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 변수의 측정

① 장소애착도

기존 연구를 보면 장소애착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차원은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으나 Williams와 Roggenbuck(1989)은 장소애착의 두 가지 차원 즉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을 측정할 바가 있다. 이들의 모델은 환경심리학, 소비자행동, 관광학 등 분야의 연구에서 애착도를

<표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측정변인	조작적 정의
【독립변인】 장소애착도	장소정체성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이용자가 지각하는 감정적 유대 정도
	장소의존성	공공도서관이 다른 장소보다 이용자의 목적이나 욕구를 보다 잘 지원하리라고 지각하는 정도
【종속변인】 장소가치인식도	서비스가치인식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식 정도
	체험가치인식도	도서관을 방문함으로써 얻어지는 체험·경험 편익에 대한 기능적, 감정적 반응 수준

측정할 때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장소애착도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실증조사를 통해 검증된 애착도 측정항목을 참고하고, 강신겸과 최승담(2002), Moore & Graefe(1994), Brown & Raymond(2007), Hammitt 등(2009)에 의하여 개발된 척도를 <표 5>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변인은 장소정체성 5개 문항, 장소의존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② 장소가치인식도

장소성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선행 연구사례를 조사해보면 이주호(2009)는 어떤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획득되어지는 경

험에 대한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체험가치'로써 특정 장소의 브랜드적 가치를 측정한 바가 있다. Yuan과 Wu(2008)은 어떤 장소의 방문을 경험한 후의 즐거움, 편안함 등 '감정적 가치'와 경제적 보상, 가격 만족, 효용성 등으로 구성된 '기능적 가치'를 측정하여 체험가치와 고객만족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소가치인식도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표 6>과 같이 '서비스가치인식도'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인식 척도 3개 문항으로, '체험가치인식도'의 경우는 7개 문항으로 Mathwick 등(2001)의 EVS(Experimental Value Scale), Yuan과 Wu(2008), 이주호 등(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항목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5> 장소애착도의 측정

측정변인	설문 내용	출처
장소정체성	• 이 도서관은 내 삶의 많은 부분 차지	강신겸(2002), Brown & Raymond(2007) Hammitt et al(2009)
	• 내가 이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나에게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줌	Brown & Raymond(2007), Hammitt et al(2009)
	• 이 도서관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	강신겸(2002), Brown & Raymond(2007) Hammitt et al(2009)
	• 이 도서관에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음	Moore & Graefe((1994), Brown & Raymond(2007)
	• 이 도서관은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음	Brown & Raymond(2007), Hammitt et al(2009)
장소의존성	• 이 도서관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위해 최적의 장소임	강신겸(2002), Brown & Raymond(2007) Hammitt et al(2009)
	•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은 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강신겸(2002), Brown & Raymond(2007) Hammitt et al(2009)
	• 다른 어떤 기관보다 이 도서관이 좋음	강신겸(2002)
	• 이사 등으로 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매우 아쉬울 것임	강신겸(2002)
	• 이 도서관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문화시설임	Brown & Raymond(2007), Hammitt et al(2009)

〈표 6〉 장소가치인식도의 측정

측정변인	설문 내용	출처
서비스가치 인식도	•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치가 있음	Cronin et al(2000)
	• 도서관 서비스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음	Cronin et al(2000), Sweeney & Soutar(2001)
	• 도서관 서비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 정도로 역량이 높음	Cronin et al(2000)
체험가치 인식도	• 도서관 시설과 디자인은 매력적임	Mathwick et al(2001)
	• 여가를 활용하기에 유용한 장소임	Mathwick et al(2001), Yuan and Wu(2008)
	• 체험을 위한 장소로서 선호함	Mathwick et al(2001)
	• 정보이용 뿐만 아니라 도서관 안에서의 활동 자체를 즐김	Mathwick et al(2001)
	• 도서관 방문 경험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을 갖게 함	박종진(2009), Mathwick et al(2001)
	• 도서관 방문경험은 일상생활을 벗어나게 해줌	박종진(2009), Mathwick et al(2001)
	• 방문을 위한 비용(시간, 돈, 심리적)보다 더 많은 것 얻음	이주호(2009)

③ 조절변수 측정

조절변수는 월평균 방문 빈도를 측정하는 이용빈도, 현 거주지 거주년수인 거주기간, 이용목적, 그리고 웹사이트 이용경험(예=1, 아니오=0)을 측정하였다.

4. 결과 분석 및 가설 검증

4.1 분석방법

회수된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해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 기초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표 7〉 참조).

〈표 7〉 분석 방법

분석대상	내용	분석방법	통계패키지
	표본의 기술통계	빈도분석, 기초통계량	SPSS 18.0
	타당성, 신뢰도	요인분석, 상관분석, 신뢰도분석	
H1	장소에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이용빈도의 조절효과 검증	계층적 회귀분석	
H2	장소에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거주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H3	장소에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이용목적의 조절효과 검증	다중회귀분석	
H4	장소에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웹사이트이용경험의 조절효과 검증	계층적 회귀분석	

계층적 회귀분석 방법은 표본을 하위 집단화할 필요가 없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계층적 회귀분석방법이 변수에 대한 정보손실효과가 없이 더 엄격하게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의 형태로 만들어진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독립변수 × 조절변수)이 회귀식에 삽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변수(Z)가 독립변수(X)와 종속변수(Y)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진다면 상호작용항은 XZ로 표현될 수 있다. 회귀식에서 변수(Z)의 조절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 = a + \beta_1X + \beta_2Z + \beta_3(XZ)$$

여기서 a = 상수

β_1X = X의 선형효과(독립변수)

β_2Z = Z의 선형효과(조절변수)

β_3XZ = X에 대한 Z의 조절효과

조절효과가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 먼저 최초의 회귀식을 측정하고($Y = \beta_0 + \beta_1X$), 2) 다음으로 조절변수(Z)를 최초의 회귀식에 삽입하여 측정한다($Y = \beta_0 + \beta_1X + \beta_2Z$), 3)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항(X*Z)을 추가하여 측정한다($Y = \beta_0 + \beta_1X + \beta_2Z + \beta_3XZ$). 여기서 β_3 의 계수가 양수라면 XZ가 종속변수 Y에 정

(+)의 효과를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Cronbach's alpha 계수는 해당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항목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Cronbach's alpha 계수는 0에서 1사이에서 주어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설문 문항 사이에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참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0.5~0.7 이상이면 문항간 신뢰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분석 결과 모든 측정 변인의 계수 값이 0.80 이상이므로 문항간의 우수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타당성 분석을 위해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표본적합도는 전체자료와 개별자료의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데, 이 값이 0.5보다 크게 되면 주어진 자료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측도 값이 0.888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Bartlett 구형성 검정 역시 자료로부터 얻어지는 변수들 간의 상관행렬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검정하는 방

<표 8> 측정항목의 신뢰도 계수

잠재변인	측정변인	문항수	Cronbach's a
장소에착도	장소정체성	10	0.863
	장소의존성		
장소가치인식도	서비스가치 인식도	3	0.816
	체험가치 인식도	7	0.840

〈표 9〉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8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575.471
	자유도	190
	유의확률	.000

〈표 10〉 설문항목의 요인 분석 결과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7.006	35.032	35.032	7.006	35.032	35.032	3.720	18.602	18.602
2	2.197	10.983	46.015	2.197	10.983	46.015	3.588	17.939	36.541
3	1.443	7.213	53.229	1.443	7.213	53.229	2.455	12.274	48.815
4	1.188	5.939	59.168	1.188	5.939	59.168	2.071	10.353	59.168

법이다. 〈표 8〉에서 유의확률이 $p < .0001$ 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에서 주어진 상관행렬은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주어진 자료에 대해 요인분석이 적절한 방법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갯수가 20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 10〉과 같이 도출된 4개의 요인이 전체의 약 60%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도출된 요인들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각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의 타당성은 적절하게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 가설 검정

4.3.1 이용빈도의 조절효과 검증

주어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빈도와 장소애착도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고 그 값이 양수(+)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호작용은 이용빈도와 장소애착도에 해당하는 변

수의 곱이 설명변수로 사용된다. 이용빈도 × 장소정체성의 상호작용과 이용빈도 × 장소의존성의 상호작용 중에서 하나라도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그 값이 양수라면 가설을 지지하게 된다.

(1) 장소애착도와 체험가치인식도와와의 관계에서 이용빈도의 조절효과 검증

공공도서관 이용빈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장소애착도(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와 이용빈도와의 상호작용항과 종속변수인 체험가치인식도간의 관계에 대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이용빈도가 많을수록 장소애착도는 체험가치인식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빈도와 장소애착도와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결과적으로 얻어진 모형은 체험가치 = $1.671 - 0.056 \times \text{이용빈도} + 0.243 \times \text{장소정체성} + 0.273 \times \text{장소의존성} + 0.010 \times \text{이용빈도} \times$

〈표 11〉 장소애착도와 체험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이용빈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체험가치인식도 설명력(R Square)=0.352 F=23.016 Signif = <.0001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value
	B	표준오차 오류	베타		
(상수)	1.671	0.237		7.061	0.000
이용빈도	-0.056	0.020	-0.655	-2.839	0.005
장소정체성	0.243	0.053	0.278	4.574	0.000
장소의존성	0.275	0.083	0.286	3.330	0.001
이용빈도×장소의존성	0.010	0.006	0.463	1.857	0.064

장소의존성(상호작용항)이다. 여기서 이용빈도 ×장소의존성에 대응하는 유의확률은 0.064로 유의수준 0.05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0.05에 상당히 가까운 값이므로 경계적으로(marginally)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양수(0.010>0)이므로 주어진 모형은 “월평균 이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장소의존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체험가치에 정(+)의 방향으로의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장소애착도와 서비스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이용빈도의 조절효과 검증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용빈도, 장소

정체성, 장소의존성이 유의수준 0.05에서 서비스가치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장소애착도×이용빈도)이 선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서비스가치인식도에 대해서는 이용빈도의 조절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 거주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현 거주지 거주기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장소애착도(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와 거주기간과의 상호작용항과 종속변수인 체험가치인식도와 서비스가치인식도간의 관계에 대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 장소애착도와 서비스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이용빈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서비스가치인식도 설명력(R Square)=0.170 F=20.226 Signif = <.0001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value
	B	표준오차 오류	베타		
(상수)	2.564	0.174		14.777	0.000
이용빈도	-0.010	0.004	-0.128	-2.332	0.020
장소정체성	0.143	0.055	0.175	2.577	0.010
장소의존성	0.263	0.062	0.293	4.252	0.000

(1) 장소애착도와 체험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거주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거주기간이 길수록 장소애착도는 체험가치인식도에 정(+)¹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해 거주기간, 장소애착도(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거주기간과 장소애착도와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회귀분석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었다.

회귀분석결과 얻어진 모형은 체험가치 = 1.957-0.04×거주기간+0.197장소정체성+0.147×장소의존성+0.014×거주기간×장소의존성(상호작용항)이다. 거주기간과 장소의존성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회귀계수값은 유의확률이 0.029이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값이 양수로 나타났으므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장소의존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체험가치에 정(+)¹의 효과가 나타났다.

(2) 장소애착도와 서비스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거주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이 유의수준 0.05에서 서비스가치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장소애착도×거주기간)이 선택되지 않았다. 또한 거주기간 변수 자체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서비스가치인식도에 대해서는 이용빈도의 조절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표 13> 장소애착도와 체험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거주기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체험가치인식도 설명력(R Square)=0.270					
		F=40.007		Signif = <.0001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value
	B	표준오차 오류	베타		
(상수)	1.957	0.305		6.411	0
거주기간	-0.04	0.022	-0.443	-1.78	0.076
장소정체성	0.197	0.06	0.232	3.28	0.001
장소의존성	0.147	0.095	0.154	1.554	0.122
거주기간×장소의존성	0.014	0.006	0.571	2.194	0.029

<표 14> 장소애착도와 서비스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거주기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서비스가치인식도 설명력(R Square)=0.111					
		F=27.212		Signif = <.0001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value
	B	표준오차 오류	베타		
(상수)	2.784	0.199		14.006	0
장소정체성	0.153	0.062	0.19	2.461	0.015
장소의존성	0.164	0.07	0.182	2.355	0.019

4.3.3 이용목적의 조절효과 검증

이용목적의 조절적 역할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용목적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후 각 이용목적 별로 장소애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소애착도와 체험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이용목적의 조절효과 검증

이용목적에 따른 집단으로 나누어 장소애착도와 체험가치인식도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표 15>와 같이 집단별로 장소애착도의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교육적 목적’ 집단은 장소정체성($\beta = .225$)과 장소의존성($\beta = .352$) 모두가 체험가치인식도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p < .001$). ‘문화적 목적’, ‘사회적 목적’, ‘정보적 목적’ 집

단은 장소의존성($\beta = .394$, $\beta = .802$, $\beta = .472$)이 체험가치인식도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p < .01$), ‘프로그램참여’ 집단은 장소정체성($\beta = .572$)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p < .01$).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장소애착도(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와 체험가치인식도와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2) 장소애착도와 서비스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이용목적의 조절효과 검증

이용목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이용목적에 따른 집단으로 나누고, 장소애착도와 서비스가치인식도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16>과 같은 모형들이 도출되었다.

‘교육적 목적’ 집단과 ‘문화적 목적’ 집단은 장소정체성(집단1, $\beta = .175$, 집단2, $\beta = .247$)과 장소의존성(집단1, $\beta = .314$, 집단2, $\beta = .191$)

<표 15> 장소애착도와 체험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이용목적의 조절효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value	F	R ²
		B	표준오차 오류	베타				
집단 1 교육적 목적	(상수)	1.223	0.214		5.710	0.000	43.411	0.276
	장소정체성	0.225	0.064	0.243	3.503	0.001		
	장소의존성	0.352	0.071	0.345	4.962	0.000		
집단 2 문화적 목적	(상수)	2.087	0.282		7.400	0	25.304	0.229
	장소의존성	0.394	0.078	0.479	5.030	0		
집단 3 사회적 목적	(상수)	0.682	0.699		0.976	0.346	13.355	0.488
	장소의존성	0.802	0.219	0.699	3.654	0.003		
집단 4 정보적 목적	(상수)	1.594	0.263		6.070	0	38.096	0.252
	장소의존성	0.472	0.076	0.502	6.172	0		
집단 5 프로그램참여	(상수)	1.439	0.511		2.818	0.015	14.059	0.520
장소정체성	0.572	0.152	0.721	3.750	0.002			

〈표 16〉 장소애착도와 서비스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이용목적의 조절효과

모형		종속변수: 서비스가치인식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t	P-value	F	R ²
		B	표준오차 오류	베타				
집단 1 교육적 목적	(상수)	2.136	0.204		10.471	0	34.492	0.232
	장소정체성	0.175	0.061	0.205	2.863	0.005		
	장소의존성	0.314	0.067	0.333	4.656	0		
집단 2 문화적 목적	(상수)	2.397	0.277		8.656	0	16.118	0.277
	장소정체성	0.247	0.09	0.333	2.731	0.008		
	장소의존성	0.191	0.095	0.245	2.01	0.048		
집단 3 사회적 목적	(상수)	2.292	0.689		3.328	0.005	4.643	0.249
	장소정체성	0.456	0.211	0.499	2.155	0.049		
집단 4 정보적 목적	(상수)	3.232	0.284		11.37	0	4.514	0.038
	장소의존성	0.176	0.083	0.196	2.125	0.036		
집단 5 프로그램참여	(상수)	2.546	0.595		4.281	0.001	7.426	0.364
	장소의존성	0.465	0.171	0.603	2.725	0.017		
집단 6 기타목적	(상수)	1.096	0.794		1.381	0.21	11.476	0.621
	장소의존성	0.778	0.23	0.788	3.388	0.012		

모두가 서비스가치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p<.05). '사회적 목적' 집단은 장소정체성($\beta = .456$)이 체험가치인식도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p<.05), '정보적 목적', '프로그램 참여', '기타목적' 집단은 장소의존성($\beta = .176$, $\beta = .465$, $\beta = .778$)이 서비스가치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장소애착도(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와 서비스가치인식도와 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4.3.4 웹사이트 이용경험의 조절효과 검증

웹사이트 이용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와 웹사이트 이용경험과의 상호작용항과 종속변수인 체험가치인식도와 서비스가치인식도간의 관계

에 대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장소애착과 체험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웹사이트 이용경험의 조절효과 검증
 가설 4-1을 검증하기 위해 웹사이트 이용경험, 장소애착도(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웹사이트 이용경험과 장소애착도와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이 유의수준 0.05에서 체험가치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장소애착도×웹사이트 이용경험)이 선택되지 않았다. 또한 웹사이트 이용경험 자체의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체험가치인식도에 대해서 웹사이트 이용경험의 조절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표 17〉 장소애착도와 체험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웹사이트 이용경험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체험가치인식도 설명력(R Square)=0.292 F=61.183 Signif = <.0001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value
	B	표준오차 오류	베타		
(상수)	1.367	0.171		7.976	0.000
장소정체성	0.217	0.055	0.249	3.974	0.000
장소의존성	0.335	0.060	0.348	5.562	0.000

〈표 18〉 장소애착도와 서비스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웹사이트 이용경험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서비스가치인식도 설명력(R Square)=0.155 F=14.012 Signif = <.0001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value
	B	표준오차 오류	베타		
(상수)	2.57	0.175		14.702	0.000
장소정체성	0.137	0.056	0.168	2.456	0.015
장소의존성	0.239	0.061	0.266	3.887	0.000

(2) 장소애착과 서비스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웹사이트 이용경험의 조절효과 검증 〈표 18〉과 같이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이 유의수준 0.05에서 서비스가치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장소애착도×웹사이트 이용경험)이 선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서비스가치인식도에 대해서도 웹사이트 이용경험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4.4 연구결과 요약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장소애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장소애착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시간’, ‘사람’, ‘행위’의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빈도, 거주기간, 이용목적, 웹사이트 이용경험을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변수의 설정은 주거지 장소애착의 요소를 도출하였던 이동근(200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조절변수인 이용자의 이용빈도와 거주기간은 예측변수인 장소의존성과 상호작용하여 결과변수인 체험가치인식도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빈도와 장소의존성의 상호작용효과($\beta=.010$)는 경계적으로 유의($p<.064$) 하나 거주기간의 상호작용효과($\beta=.01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장소의존성은 이용자가 도서관의 기능에 의존하는 애착의 형태로서 방문빈도가 높을수록, 현 거주지 거주기간이 긴 이용자일수록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제 기능에 대한 이용자의 애착이 그 도서관의 장소체험에 따른 가치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용빈도와 거주기간은 장소의존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관광분야에서 거주기간과 장소애착과의 관계를 연구한 강신겸(2001), 환경심리학 분야의 Lewica(2005)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결과변수인 서비스가치인식도와와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장소애착도가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따른 편익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용자가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체험함으로써 인식하는 장소적 가치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용자의 방문목적에 따라 장소애착도가 체험가치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교육적 목적' 집단은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이 높을수록 체험가치인식도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교육적 기능은 이용자의 기능적 애착뿐만 아니라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결국 이용자는 도서관 체험에 따른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적 목적', '사회적 목적', '정보적 목적' 집단은 장소의존성이 높을수록 체험가치인식도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사회적, 정보적 역할이 이용자의 기능적 애착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이용자는 도서관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프로그램참여' 집단은 장소정체성이 높을수록 체험가치인식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장소정체성을 강화시키고 도서관에서의 활동에 따른 가치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방문목적에 따라 장소애착도가 서비스 가치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교육적 목적' 집단과 '문화적 목적' 집단은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 모두가 서비스가치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교육적, 문화적인 역할에 이용자는 기능적으로 의존하고, 정서적 유대가 강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목적' 집단은 장소정체성이 서비스가치인식도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결과는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를 통해 이용자는 도서관에 대한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며 이것이 도서관의 서비스가치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정보적 목적', '프로그램 참여' 집단은 장소의존성이 서비스가치인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용자들의 목적지향적인 행태를 반영하는 결과로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적 기능의 이용과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능적인 의존에 따른 애착이 형성되어 서비스가치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방문동기와 장소애착 간의 관계를 분석한 Kyle 등(2004)의 연구에서는 방문동기 따라 장소애착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개념화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용목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용목적별 집단으로 구분한 후 장소애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것이 차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용자의 장소가치인식도와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소애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와와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인 웹사이트 이용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측정변수인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이 장소가치인식도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웹사이트 이용경험 변인 자체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웹사이트 이용경험과는 별개로 자신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해 기능적, 감정적 애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애착정도는 장소가치인식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의 주요 변인인 장소애착도와 웹사이트 이용경험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공공도서관은 일반 대중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며 문화자원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구현하는 이상적인 가치에는 질적인 속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자체만으로 분석하고 입증하기에 매우 어렵다. 그러나 도서관을 '장소'로 보는 관점은 단지 잠재적이고 추측으로 머물러 있는 도서관의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다. Gorman(2006)은 도서관의 자원을 보존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한 여섯 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는데 그 중에서 '장소로서의 도서관의 문화·사회적인 가

치를 촉진'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학,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장소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공도서관의 사회·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으로 측정된 장소애착도는 장소가치인식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기능적 애착, 감정적 유대감은 도서관의 장소적 가치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 내부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명되었으나 이용자와 도서관과의 상호관계맺음을 통해 이용자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연구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장소애착도는 만족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측정변인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 이용빈도는 이용자의 장소애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즉 이용빈도는 장소애착도와 상호작용으로 장소가치인식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도서관에 대한 체험이 장소애착의 기제 형성에 제한적으로나마 일정부분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공공도서관 이용빈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인을 찾아내거나 도서관 방문에 대한 의사결정구조를 분석하는 등의 후속적인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현거주지 거주기간은 이용자의 장소애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즉 거주기간은 장소

애착도와 상호작용으로 장소가치인식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공도서관에 대한 애착이 형성됨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용자의 거주특성도 장소애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성과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시간적인 축적이 필요하며,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단기 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 정책 및 평가 방법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장소애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이용자의 방문목적에 따라 장소애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와의 관계가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애착의 유형-기능적으로 의존하는지 정서적으로 유대하고 있는지-이 달라지며, 장소애착도에는 이용자의 목적지향적인 행태도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장소애착도와 장소가치인식도와의 관계에서 웹사이트 이용

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웹사이트 이용 경험과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웹사이트 이용경험은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인 장소애착도와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임을 반증해주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는 그것의 중요성에 비해서 선행연구가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할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론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타 학문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논의를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연구의 주요부분이 장소성의 구성요소인 시간, 사람, 행위의 조절효과에 초점을 둔 까닭에 공공도서관의 장소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이용목적에 따른 집단별 분석에서 다소 주관적 해석이 개입된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장소애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모형으로 장소로서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신겸, 최승담. 2002. 관광지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 측정 척도 개발. 『관광학연구』, 26(1): 103-117.
- [2] 강홍빈. 1998. 『근대화의 도시풍경: 신주작대로 기행』. 서울: 박영사.
- [3] 권은경. 1997. 도서관의 본질과 미래도서관상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1-21.

- [4] 김동근. 2008. 『주거지역의 장소애착 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 [5] 김지예. 2008. 『문학작품에 나타난 장소감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전공.
- [6] 박청인. 2000. 국립공원 취락지구 주민의 귀속감이 공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적 연구. 『국토계획』, 35(1): 129-139.
- [7] 양재한. 2000. 『공공도서관의 성립과 사회적 역할』. 서울: 태일사.
- [8] 윤유식, 곽용섭. 2005. 지역주민의 장소애착심에 따른 관광지 평가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카지노연구』, 4(2): 511-525.
- [9] 이은숙. 2005. 장소에 대한 애착의 개념구조. 『사회과학연구』, 20: 1-16.
- [10] 이정호. 2010.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11] 이주호. 2009. 『장소이미지, 체험가치, 그리고 재방문의도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12] 차미경. 2006. 유비쿼터스 시대 도서관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325-343.
- [13] 최막중, 김미옥. 2001. 장소성의 형성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실증분석: 대학로와 로데오 거리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36(2): 153-162.
- [14] 최열, 임하경. 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0(2): 53-64.
- [15] Altman, I., & Low, S. M., ed. 1992. "Place Attachment."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vol.12. New-York: Plenum Press.
- [16] Antell, K., & Engel, D. 2006. "Conduciveness to scholarship: The essence of academic library as plac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7(6): 536-560.
- [17] Audunson, R. 2004. "The public library as a meeting-place in a multicultural and digital context." *Journal of Documentation*, 61(3): 429-441.
- [18] Bricker, K. S., & Kerstetter, D. L. 2000. "Level of specialization and place attachment: An exploratory study of whitewater recreationists." *Leisure Sciences*, 22(4): 233-257.
- [19] Brown, B., Perkins, D. D., & Brown, G. 2003. "Place attachment in a revitalizing neighborhood: Individual and block levels of analysi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3): 259-271.
- [20] Entrikin, J. N. 1991. *The Betweenness of Place: Towards a Geography of Modernity*.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21] Feldman, R. M. 1990. "Settlement-identity: psychological bonds with home places in a mobile society." *Environment and Behavior*, 22(2): 183-229.
- [22] Given, L. M., & Leckie, G. J. 2003. "'Sweeping' the library: Mapping the social activity space of the public librar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5(4): 365-385.

- [23] Gorman, M. 2006. "President's message: Get smart." *American Libraries*, 37. [online]. [cited 2011.8.14]. <<http://mg.csufresno.edu/columns/AL0106p004.pdf>>.
- [24] Gregory, Brown, & Raymond, Christopher.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landscape values: Toward mapping place attachment." *Applied Geography*, 27(2): 89-111.
- [25] Hammitt, W. E., Kyle, G. T., & Oh, C. O. 2009. "Comparison of place bonding models in recreatio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1(1): 57-72.
- [26] Hummon, D. M. 1992. "Community attachment: Local sentiment and sense of place." *Place Attachment*, 12: 253-278.
- [27] Kasarda, J. D., & Janowitz, M.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28-339.
- [28] Kyle, G. T., Mowen, A. J., & Tarrant, M. 2004. "Linking place preferences with place meaning: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motivation and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4): 439-454.
- [29] Lewicka, M. 2005. "Ways to make people active: The role of place attachment, cultural capital, and neighborhood 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4): 381-395.
- [30] Mathwick, C., Malhotra, N., & Rigdon, E. 2001. "Experiential value: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application in the catalog and internet shopping environment." *Journal of Retailing*, 77(1): 39-56.
- [31] Moore, R. L., & Graefe, A. R. 1994. "Attachments to recreation settings: The case of rail-trail users." *Leisure Sciences*, 16(1): 17-31.
- [32] Most, L. R. 2009. *The Rural Public Library as Place in North Florida: A Case Study*. Ph.D. diss.,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tudies.
- [33] Myall, C. 1999. "The library as place." *ALKI*, 15(3): 4.
- [34] Proshansky, H. M. 1978. "The city and self-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10(2): 147-169.
- [35] Proshansky, H. M., Fabian, A. K., & Kaminoff, R. 1983. "Place-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57-83.
- [36]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ondon.
- [37] Schreyer, R., et al. 1981. "Environmental meaning as a determinant of spatial behaviour in recreation." In *Proceedings of the Applied Geography Conferences*, 294-300.
- [38] Shill, H. B., & Tonner, S. 2003. "Creating a better place: Physical improvements in academic libraries, 1995 - 2002."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4(6): 431-466.

- [39] Stokols, D., & Shumaker, S. A. 1981. "People in places: A transactional view of settings."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Hillsid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 [40] Stokowski, P. A., & Lee, R. G. 1991.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ties on recreation and leisur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2): 95-113.
- [41] Tuan, Y. F. 1980. "Rootedness versus sense of place." *Landscape*, 24(1): 3-8.
- [42] Williams, D. R., Patterson, M. E., Roggenbuck, J. W., & Watson, A. E. 1992. "Beyond the commodity metaphor: Examining emotional and symbolic attachment to place." *Leisure Sciences*, 14(1): 29-46.
- [43] Williams, D. R., & Roggenbuck, J. W. 1989. "Measuring place attachment: Some preliminary results." In *Symposium on Outdoor Recre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Research Symposium on Leisure Research*. [San Antonio, USA].
- [44] Williams, D. R., Anderson, B. S., McDonald, C. D., & Patterson, M. E. 1995. "Measuring place attachment: More preliminary results." In *Symposium on Outdoor Recre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Leisure Research Symposium*, October, 1995. [San Antonio, TX].
- [45] Yuan, Y. H., & Wu, Chihkang. 2008. "Relationships among experiential marketing, experiential value, and customer satisfactio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32(3): 387-41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Shin-Kyum, & Choi, Seung-Dam. 2002. "The measurement of residents' community attachment in tourist dest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6(1): 103-117.
- [2] Kang, Hong-Bin. 1998. *Urban Landscape in Modernization Period*. Seoul: Pakyoungsa.
- [3] Kwon, Eun-Kyung. 1997. "The measurement of residents' community attachment in tourist destination." In *Proceedings of the 1st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1-21.
- [4] Kim, Dong-Keun. 2008. *A Study on the Place Attach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Ph.D.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 [5] Kim, Ji-Ye. 2008. *A Change of Sense of Place in Literature*. M.A. thesis,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 [6] Park, Chung-In. 2000. "An exploratory study on national park residential community: Attachment, satisfaction, and attitude to toward park management."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35(1): 129-138.

- [7] Yang, Jae-Han. 2000. *A Social Role of Public Libraries*. Seoul: Tail-Sa.
- [8] Yoon, Yoo-Shik, & Kwock, Young-Sub. 2005. "Residents' place attachment in evaluating tourism destination." *Hotel, Casino Research Journal*, 4(2): 511-525.
- [9] Lee, Eun-Sook. 2005. "Conceptual structure of place attachment." *Social Science Review*, 20: 1-16.
- [10] Lee, Jeong-Ho. 2010.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laceness in Public Libraries*. Ph.D. dis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 [11] Lee, Ju-Ho. 2009.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lace Image, Experiential Value, and Intention to (Re)Visit*. Ph.D. diss., Kangwon University.
- [12] Cha, Mi-Kyeong. 2006. "A study on the library space in the emerging ubiquitous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1): 325-343.
- [13] Choi, Mack-Joong, & Kim, Mi-Ok. 2001. "Empirical analysis of components and economic values of the 'Placeness': The cases of Daehak and Rodeo Streets in Seoul."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36(2): 153-162.
- [14] Choi, Yeol, & Yim, Ha-Kyoung. 2005. "The perception and the determinants of place attachment."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40(2): 53-64.